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대한민국 빛낸 13인 대상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선정	1
江原日報		도내 의원들 강서구청장 보선 지원 대결	2
江原日報		횡성한우축제 닷새간 대장정 ‘팡파르’[1/3]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16일 도 신청사 '춘천 고은리 249필지' 취득건 심의	5
江原日報	온라인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강원자치도 추진전략 모색	6
江原日報	21면	춘천뿌리전 열네 번째 회원전 개막 눈길	7
江原日報	10면	‘인삼·한우 환상조합’ 7만여명 즐겼다	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화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9
江原日報	10면	홍천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9
江原日報	16면	화천군 협회장기 족구대회	9
KBS 춘천		마지막까지 혼자...‘무연고 사망’ 가파른 증가세[1/3]	10
江原日報		[포토뉴스]‘강원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1/2]	13
강원도민일보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개막... 사흘간의 축제 일정 ...	15
강원도민일보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개막... 사흘간의 축제 일정 ...	16
江原日報		화천 산양초 '지역과 함께 하는 책 축제'[1/2]	1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양숙희.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9
江原日報	01면	道, 국도·국지도 15개 이상 신설 총력전	20
江原日報	04면	양양·평창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21
江原日報	03면	강원 의원 법안 국회 통과 잇따라	21
江原日報	06면	빛 못 값은 소상공인 급증...326억 대신 값아줘	22
강원도민일보	01면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입국, 성공개최 불업 확산	23
강원도민일보	02면	'세계 청소년 꿈' 담긴 올림픽 성화 80일간 전국 누빈다	23
강원도민일보	22면	"조직위·강원특자도·정부 한마음 대회준비 매진"	24
강원도민일보	01면	삼척 이사부, 한국 대표 역사인물 문화축제 발돋움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반려동물 원정 유기 처벌 강화해야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글로벌대학' 모두 선정돼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다시 들쭉이는 물가, ‘경제고통’ 끝은 어디인가	27

江原日報

2023 10 10 ()

대한민국 빛낸 13인 대상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선정

김기홍(국민
의힘·원주·사
진) 강원특별자
치도의회 부의
장이 제6회 대



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자에 선정됐다. 김 부의장은 지
역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역발전 부문 경제산
업공헌대상을 받는다.

KNS뉴스통신, 장애인문화
신문이 주최하고 (재)국제언론
인클럽, (사)서울경제인연합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13
인 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등 각계각
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
인 인물에게 수여된다. 시상식
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구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현정기자 together@

江原日報

2023 10 10 ()



◇박정하(원주갑)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지난 7일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원주시의원들과 까치산시장 등 강서구 일대에서 선거 지원활동에 나섰다(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같은 날 춘천시의원들과 함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도내 의원들 강서구청장 보선 지원 대결

내일 본투표 앞두고 여야 국회·지방의원 총력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11일)를 앞두고 강원권 의원들과 여야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꼽히면서 선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 강원권 국회의원들도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 팔 걷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국회의원은 지난 8~9일 이들 동안 양속회 강원도위원을 비롯한 당원들과 함께 까치산시장 등을 다니면서 같은 당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권성동(강릉) 의원도 지난 5일 화곡 본동시장을 찾아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 발전의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는 ‘화곡을 마곡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중앙과 광역지자체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김 후보의 약속은 충분히 가능한 공약들”이라고 주저 않았다. 노용호 의원도 7일 우장산역, 수명산 공원, 송화시장 곳곳에서 아침인사를 하며 김태우 후보의 공약 홍보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강원자치도당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도당의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박정하(원주갑) 도당위

원장은 5일 김기현 당대표의 강서구 유세에 동행했고 이어 7일에는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박길선 교육위원장, 최재민·하석균 도의원, 원주시의원들과 까치산시장 등에서 선거 지원활동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도 진교훈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7일 밤까지 같은 당 지방의원들과 함께 강서구를 누비면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 유세에 힘을 보탰다.

허 의원은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고 꼭 이긴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선거운동 기간 조를 나눠 선거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이하늘기자

2023 10 06 ()

江原日報

횡성한우축제 닷새간 대장정 '팡파르'

개막식 2,000여명 운집... 대한민국 대표 한우 만끽
지역 상권 연계 행사장 확대 · 판매장과 구이터 분리



제19회 횡성한우축제장에 마련된 구이터에 개막 첫날인 6일부터 손님이 붐비고 있다.



제19회 횡성한우축제 개막 첫날인 6일 횡성축협 판매장에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제19회 횡성한우축제장에 마련된 구이터에 첫날인 6일부터 손님이 붐비고 있다.



제19회 횡성한우축제장 첫날인 6일 각종 부스에 방문객들이 붐비고 있다.



제19회 횡성한우축제장 첫날인 6일 행사장 주변에 각종 설치물들이 방문객을 맞았다.



제19회 횡성한우축제장 첫날인 6일 행사장 주변에 각종 설치물들이 방문객을 맞았다.

횡성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제19회 횡성한우축제가 6일 닷새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첫날 오후 1시부터 횡성종합운동장 메인무대에서는 지역 예술단들이 출연해 단체 공연을 선보였다.

문화체육로 4차선 대로에 마련된 구이터존과 판매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횡성한우구이난장 때창 공연이 30분마다 진행돼 흥을 돋웠다.

스피릿존에서는 퍼포먼스 공연으로 매직쇼, 버블쇼, 벌룬쇼 등이 이어졌다.

오후 7시 웰니스존에 있는 메인무대에서 시작된 개막식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조창진 민주당 평통 자문회의강원특별자치도 부의장,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과 최규만 도의원, 국제자매도시 일본 야즈정 요시다 히테토 정장, 오시마 이사오 의장, 조경희 농협횡성군지부장과 한우생산.유통단체장, 미국 유통회사 승원기업 알빈 리 사장, 지역 기관.단체장, 관객 등 2,000여명이 운집했다.

횡성한우환타지아 주제공연과 다이나마이트팀의 브릿지 공연에 이어 허민영, 나상도, 추혁진, 송민준, 최수호 등 초청 가수 개막 축하공연이 계속됐다.

미식파티존에서는 유명 셰프 에드워드권이 사전 예약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요리를 맛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횡성한우 웰니스 마켓, 스티릿존부스, 일반 부스 등이 상시 운영중이다.

축제장에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횡성을 비롯해 평창.강릉.정선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부스가 운영돼 '개최지 횡성'을 소개한다.

또 축제기간 내내 드론이 투입돼 실시간으로 축제 상황을 중계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드론팀은 전원이 드론비행 조종 자격자로 구성된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이 투입돼 안전과 교통 관리까지 지원한다.

축제 둘째날인 7일에는 횡성한우요리 경연대회, 웰니스파티, 전통혼례. 횡성한우환타지아 주제공연, 미식파티, 횡성한우구이난장 때창 등이 펼쳐진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0 ()

03

도의회 16일 도 신청사 '춘천 고은리 249필지' 취득권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11일 개최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가 조성되는 춘천 동내면 일대 토지 취득권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의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오는 16일 제323회 임시회에 서도 신청사 토지 취득(165억4600만원)건 등 4건이 담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신청사 토지 취득규모는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249필지, 13만 8100㎡ 규모다. 24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65억4600만원으로 추산돼있다. 도는 지난해 말 토지매입비 451억, 지장물보상비 112억, 간접보상비 5억

등 총 568억9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산했으나 보상비, 이주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청사 실시설계 및 지장물 철거는 2025년 5월, 청사부지 토목공사 착공은 2025년 10월로 계획됐다. 도 신청사 총 사업규모는 252필지 13만8244㎡로 이 가운데 3필지(144㎡)를 제외한 249필지를 취득해야 한다.

이날 심의하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엔 태백소방서 청사 취득(142억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취득(37억원),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취득(170억원) 및 처분건도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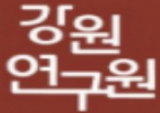
이설화 lofi@kado.net

2023 10 09 ()

江原日報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강원자치도 추진 전략 모색

강원일보·강원연구원 10일 오후 2시 강원포럼 개최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강원도의 추진전략

2023. 10. 10.(화) 14:00 강원연구원 리버티홀

주 최 강원연구원, 강원일보

좌 장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

주제발표
지방시대 특구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추진 방향
조명호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김상영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모종린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정근 |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
이영욱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최병수 | 강원일보 전무이사
허장현 |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연구원(원장:현진권)은 10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강원도의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원포럼을 개최한다.

강원일보와 강원연구원이 10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강원도의 추진전략’을 주제로 강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 발표’에 대응,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을 촉구하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시대 특구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정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부위원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토론한다.

江原日報

2023 10 10 ()

21



◇춘천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인 ‘춘천뿌리전’의 열네 번째 회원전 개막식이 지난 6일 춘천미술관에서 열렸다.

춘천뿌리전 열네 번째 회원전 개막 눈길

38명 참여·내일까지 운영

춘천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인 ‘춘천뿌리전’의 열네 번째 회원전 개막식이 지난 6일 춘천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희철·임미선 강원자치도의원, 이무상 서면 문인회장, 이종봉 강원자치도미술협회장, 김윤선 춘천미술협회장, 참여 작가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남수 회장은 “회원들의 탐

과 노력의 열정으로 잉태된 작품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문화생활과 정서 함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도 여러분의 활동이 춘천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 토양을 넓히고 비옥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을 닮아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이운식 작가 등 작가 3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춘천 출신 작고작가와 출향작가들의 작품을 지면으로 소개하는 지상전이 11일까지 이어진다.

오석기기자

江原日報

2023 10 10 ()

10



◇홍천을 대표하는 명품 인삼과 한우의 환상적인 조합을 선보인 '제21회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렸다.

‘인삼·한우 환상조합’ 7만여명 즐겼다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

【홍천】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이 주최한 가을철 홍천지역 대표행사 ‘제21회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가 7만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관련 기사 21면

이번 축제는 지난 6일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김성운 홍천경찰서장, 김병지 강원FC 대표,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신은섭 홍천군체육회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을 통해 화려하게 시작했다. 이날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6~9일 토리숲 일원서 열려 스포츠 대회·가요제 펼쳐져
전년대비 판매량·매출 상승

태권도 품새 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홍천군청 소속 강완진 선수와 김태완 감독에게 메달 및 꽃다발 전수식도 진행됐다.

9일까지 이어진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연관 행사로는 전국팔씨름대회, FIBA 3×3농구대회, 축하공연 및 한마음콘서트, 홍천강가요제 등이 진행됐다. 또 한우 샌드위치, 인삼튀김, 인삼경매, 한우 만원의 행복 등 특색 있는 먹거리도 호평을 받았다.

올해 인삼과 한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인삼 20%(7톤), 한우 38%(90톤)씩 늘었으며 매출은 인삼 10%, 한우 64%씩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와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를 통해 보다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축제의 성과에도 토리숲 일대 주차 문제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리숲은 각종 행사 개최 시 협소한 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정차에 따른 안전도로 확보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과제로 남아 있다. 하위윤기자

2023 10 09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6일 화천체육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허행일 경찰서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군노인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노인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10 ()

江原日報

10



홍천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홍천군재향군인회(회장:이효식)는 지난 6일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조철희 제13기계화 보병여단장,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하필홍 민주당 홍천형성영월평창지역위원장, 강현오 홍천군안보단체협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3 10 10 ()

江原日報

16



화천군 협회장기 족구대회 제5회 화천군 협회장기 족구대회가 9일 사내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09 ()

KBS 춘천

마지막까지 혼자... '무연고 사망' 가파른 증가세



강원도 춘천의 한 봉안시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봉안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봉안시설. 꽃다발과 가족들의 편지가 가득한 봉안당과 달리 한 쪽에 마치 창고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에는 꽃 한 송이 없이 놓인 유골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칸도 있고, '미상'이라고 적혀 있거나 그마저도 없이 발견 날짜만 적힌 칸도 있었습니다. 모두 숨진 뒤 가족을 찾지 못했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도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를 안치한 곳입니다. 11,000 위를 봉안하는 시설의 10%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안식공원 담당자인 정민규 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많다고 느꼈고,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유골을 안치한 뒤 뒤늦게 지인이나 가족이 찾아와 '미안하다'며 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취재를 위해 찾은 춘천의 봉안시설엔, 전체 11,000위 가운데 10% 정도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자리로 만들어져 있었다.

홀몸 노인을 포함해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만 해도 3,136명이었습니다. 2021년엔 3,603명으로 늘더니 2022년엔 4,842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2,658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구성의 22%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된 강원도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지난해 197명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크게 늘어,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 인구가 많은 강원도는 증가폭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크다.

마지막까지 '외로운' 무연고 사망자가 느는 것 자체도 사회 문제지만, 이후 절차도 문제거리입니다.

유품처리부터 사망신고, 장례, 화장과 안치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가족이나 지인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니 이 일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남겨집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인력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여력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바로 화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후 관리도 걱정입니다. 일단, 시신을 화장한 뒤 봉안시설에 안치한다고 해도, 5년이 지날 때까지 가족이나 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유골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속속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최근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무연고자 또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하고 예산도 좀 나눠서 가시는 길을 책임지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는 길을 쓸쓸하게 보내지는 않는다, 국가가 그 래도 이런 부분까지도 배려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이런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영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 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봤더니, 지난해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 됐습니다. 외로운 마지막을 맞게 될 우려가 있는 이웃들이 주위에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 다. 이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이런 사례가 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이 발생하지 않 도록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발굴하려 는 노력이 함께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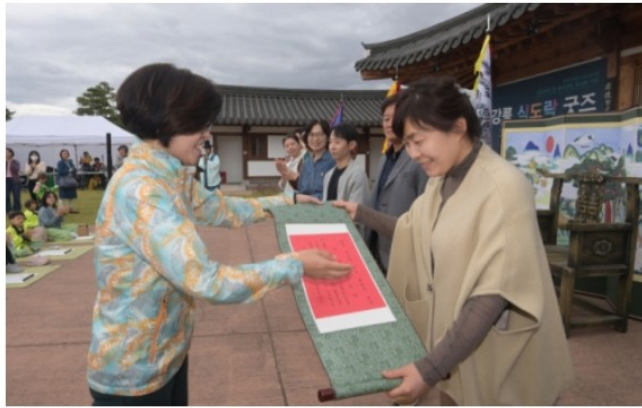
2023 10 08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원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



'강원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이 8일 강릉 오죽한옥마을 사물재에서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윤희주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심오섭 도의원, 심상복 시문화관광해양국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이 8일 강릉 오죽한옥마을 사물재에서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윤희주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심오섭 도의원, 심상복 시문화관광해양국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이 8일 강릉 오죽한옥마을 사물재에서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윤희주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심오섭 도의원, 심상복 시문화관광해양국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이 8일 강릉 오죽한옥마을 사물재에서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윤희주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심오섭 도의원, 심상복 시문화관광해양국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이 8일 강릉 오죽한옥마을 사물재에서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윤희주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심오섭 도의원, 심상복 시문화관광해양국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10 07 ()

강원도민일보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개막... 사흘간의 축제 일정 돌입



▲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6~8일 사흘간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6일 전야제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동해 개척·경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관광 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한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축제'가 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했다.

삼척시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출정, 그리고 승전'을 주제로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주 행사장인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는 1500년 전 우산국(율릉도, 독도)을 우리 영토로 만든 신라 이사부 장군의 동해 개척의 꿈과 투혼을 계승해 영토수호, 21세기 해양 강국 실현의지를 다지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수준높은 공연과 심도있는 학술대회,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있게 펼쳐진다. 주무대인 삼척문화예술회관 특설무대에서는 6일 오후 6시부터 박상수 삼척시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 주최측 인사를 비롯해 정정순 삼척시의장과 조성운 도의원, 김성중 동해해양경찰청장, 광병일 삼척경찰서장, 신순금 삼척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공식행사가 펼쳐졌다. 마칭밴드와 타악공연 등 식전공연을 비롯해 나태주, 정수라, 강혜연 등 인기가수가 출연해 '무조건', '환희', '왔다야' 등을 열창하며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객들을 열광의 한마당으로 이끌었다. 행사장 옆 오십천 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관객들의 환호성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6~8일 사흘간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6일 전야제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어 7일에는 이사부 장군을 주제로 박상수 삼척시장과 정정순 삼척시의장이 출연해 이사부 축제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축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진단하면서 배일호, 문연주, 요요미, 국상현 등이 출연하는 TV 공개방송(오후 3시)이 진행된다. 또 지역단체공연 뽕파전(오후 1시)과 더 퍼플의 팝페라(오후 6시), 올댓갈라의 뮤지컬 갈라쇼(오후 7시) 등이 펼쳐진다. 축제 마지막날인 8일에는 이사부예술단 공연(오후 1시)과 이사부퀴즈대회(오후 2시), 슈퍼스타의 타악팀 공연(오후 4시), K-타이거즈가 함께하는 태권무 전국경연대회(오후 5시) 등이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사자탈만들기와 에코백 만들기, 키즈존,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과 신라시대 복식체험 등을 비롯해 마카 폴리마켓이 열려 도마와 손수건, 주얼리, 레진공예, 도자기, 천연비누 등 지역상품이 판매된다. 또 국립중앙과학관의 '율릉도·독도 생태 사진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의 '바닷속 독도를 만나다' 전시회, 강원기상청의 '기상기후 사진전' 등이 펼쳐진다.



▲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6~8일 사흘간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6일 전야제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박상수 시장은 "동해바다 해양 개척의 역사가 시작된 삼척에서 이사부 축제를 중심으로 이곳 삼척을 대한민국 해양 역사의 성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이사부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정순 시의장은 "이사부 축제는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해양 영웅이자 동해 개척의 선구자"라며 "이사부 장군의 정신을 되새기고, 삼척이 동해바다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 지 재확인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6~8일 사흘간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6일 전야제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김중석 회장은 "이사부축제는 다른 많은 축제와 다르게 역사적 시대적 상징과 의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사부를 통해 동해바다를 안보의 바다, 평화의 바다, 번영의 바다로 경영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열정,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세종로와 통영, 여수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전남 완도에 장보고 대사 동상이 있듯이 삼척에도 해상 영웅 이사부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그 기상이 시민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1500년 전 신라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울릉도, 독도)를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금 열리는 이사부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역사를 배우고 삼척의 가을 바다 정취도 마음껏 즐기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1석2조의 추억을 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3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6~8일 사흘간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6일 전야제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에서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 장군의 개척정신을 기리고 동해바다 수호의 염원을 담은 이사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삼척의 관광활성화와 시민 소통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 10 06 ()

江原日報

화천 산양초 '지역과 함께 하는 책 축제'

주민과 함께하는 즐겁고 유익한 독서 행사
작가와 만남, 농구장·상상놀이터도 오픈



화천 산양초교가 6일 김동선 교장, 박대현 도의원, 학부모, 주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책축제 행사를 가졌다.





화천 화천 산양초교(교장:김동선)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책축제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6일 열린 책축제에서는 독서 체험행사를 비롯해 동화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로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알뜰바자회와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은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사용처를 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어진 상상놀이터와 박대현 도의원의 도움으로 만든 농구장 오픈 기념식도 함께 가졌다.

김동선 교장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여서 의미가 더 크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3 10 09 ()

[동정] 양숙희.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양숙희(춘천) 도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춘천 신북읍 샘밭장터에서 열리는 신북농협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10일 오후 2시 원주 남산골 문화센터 미담관에서 열리는 2023 원주 아트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 10 10 ()

01

道, 국도·국지도 15개 이상 신설 총력전

정부 제6차 계획 수립 착수 ... 전국·도내 지자체 본격 경쟁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최대 규모 '초대형 용역' 발주해 대비
춘천 안보~용산·원주 흥업~지정 우회도로 등 최우선 사업

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전국 광역시·도 간은 물론 시·군 간 경쟁도 달아 오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5개 이상의 국도·국지도를 신설 또는 확장한다

는 목표를 세우고 초대형 용역을 발주, 경쟁에 대비하고 나섰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5일 18개 시·군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6억원 규모로 민

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도는 국도 22개, 국도 대체 우회도로 7개, 국가지원지방도 12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5조1,700억원 규모다.

춘천 안보~용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4차로 신설·12.6km)와 삼척 오분~동해 대구 우회도로(4차로 신설·8.8km), 원주 흥업~지정 우회도로(4차로 신설·5.2km), 홍천 북방~춘천 동산 국도 5호선 4차로 확장(18km),

2028년 준공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연계도로인 춘천 신동~동면 우회도로(8.3km) 등이 최우선 사업으로 거론된다.

춘천 안보~용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제2경춘국도와 춘천 북부권, 철원·화천·양구를 연결한다. 삼척 오분~동해 대구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동해항과 북평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추진 중이다. 원주 흥업~지정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원주권 성장 동력의 양대 축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구간 중 일부다. 완전 개통 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 연계 교통망 구축은 물론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 중앙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이 확대된다.

홍천 북방~춘천 동산 국도 5호선은 왕복 2차선에 굴곡이 심해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까지 전국 건의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200여개 사업을 압축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세혈관 역할을 할 국도 등의 신설, 확정을 위한 사업의 당위성, 경제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10 10 ()

江原日報

04

양양·평창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도내 12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배분된 732억 중 집행은 110억
양양 심사 통과 못해 사업 불투명
삼척·정선은 50% 안팎 큰 차이
향후 예산 축소 불이익 우려돼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 지역 지자체들이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계획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가 안갯속인 지자체도 있어 ‘주는 땀’도 못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올해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도내 12개 시·군에 배분된 732억 원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10억원으로 집행률이 15%에 그쳤다.

양양과 평창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은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 계획으로 7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사업’으로 48억원을 우선 받았지만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5년간 총 사업비가 391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200억원 이상)인데, 아직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현황 (올 6월말 기준)

구분	시·군별 집행률
0~1%대	양양·평창(0%), 태백(0.3%), 화천(0.2%), 횡성(1.9%)
10% 이하	영월(4.5%), 양구(7.2%)
50% 이하	홍천(15.9%), 고성(18.2%), 철원(23.1%), 정선(48%)
50% 이상	삼척(55.4%)

자료:행정안전부

다. 행안부는 물류단지 조성 관련, 화물 수요 산출 근거를 요구하며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양양군은 지난 8월 재심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양양국제공항이 개점

휴업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0% 미만인 도내 지자체는 태백(0.27%), 횡성(1.86%), 영월(4.49%), 화천(0.19%), 양구(7.20%) 등이었다. 이에

비해 삼척(55%), 정선(48%) 등은 집행률이 50% 안팎이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임호선 의원은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야 이뤄져 사업 집행 기간은 부족했지만, 올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는데도 여전히 0%인 지자체들이 있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2023 10 10 ()

江原日報

03

강원 의원 법안 국회 통과 잇따라

이철규 발의 상표법 개정안 가결 노용호 대외무역법 등 4건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원권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환경 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부분대체를 인정하고 국제상표의 분할인정 등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제 질서와 국내법 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출원 절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국제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국내외 상표등록출원 실무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용호(비례·춘천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외무역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으나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해 징수율을 높이면서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법, 벤처기업법, 판로지원법, 전통시장법 등 4개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용호 의원은 “불필요한 규정은 혁파하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023 10 10 ()

06

江原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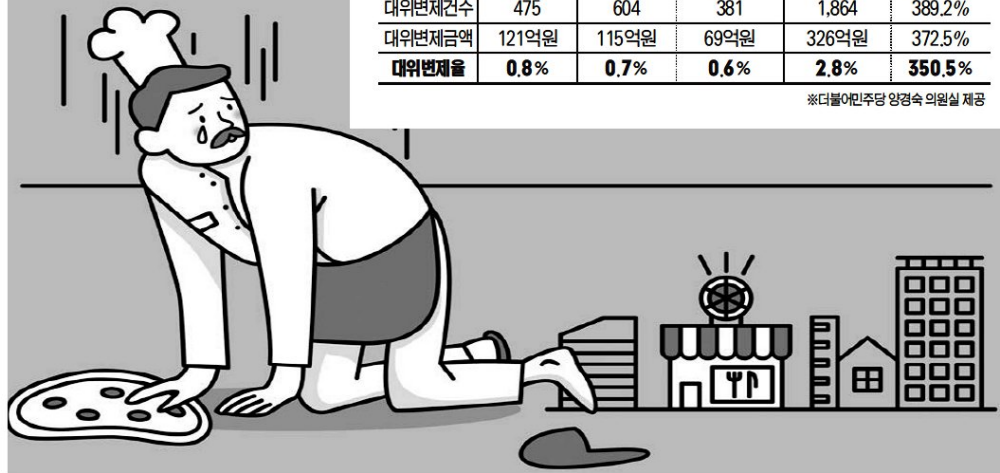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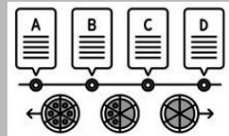
빛 못 갚은 소상공인 급증... 326억 대신 갚아줘

강원신보 대위변제 2배 훌쩍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지난해에 2배를 훌쩍 넘는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원자치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보증상품에 대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2.5% 증가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공적 보증기관이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도내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한계까지 대출을 받은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잔액 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8월까지 누적	2023년 8월	전년 대비 증감률
사고건수	906	1,135	539	2,350	336.0%
사고금액	179억원	223억원	111억원	415억원	273.9%
사고율	1.2%	1.3%	1.0%	3.5%	256.5%
대위변제건수	475	604	381	1,864	389.2%
대위변제금액	121억원	115억원	69억원	326억원	372.5%
대위변제율	0.8%	0.7%	0.6%	2.8%	350.5%

※다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사고금액 2021년 179억·작년 223억 ... 올 들어 8월까지만 415억
코로나 때 폭증한 대출 본격 상황 시작 ... 당분간 변제액 더 늘 듯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115억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106억원에서 2021년 121억원, 지난해 115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2020년 150억원에서 2021년 17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223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고율도 급증했다.

2020년 1.1%를 보였던 사고율은 2021년 1.2%, 2022년 1.3%에서 올해 3.5%로 전년 대비 256.5% 늘었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고 2~3년 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입국, 성공개최 불업 확산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 2024 강원 대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로, 윤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불업 확산도 본격화되고 있다.

2024강원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 강원 4개 지역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구촌 80여개국의 청소년

내일 G-100 전국 성화투어 출발

내년 1월19일부터 15종목 경기

년 선수 1900여명과 대회 관계자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바이애슬론, 스키 등 7개 경기 15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

면서 K콘텐츠를 알리는 종합 축제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4강원 대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잇는 대회로, 평창올림픽 유산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강원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진중오·이상화)는 지난 8일 인천

2023 10 10 ()

01

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올림픽 성화 입국환영'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날 평창소방서 대관령 119안전센터에 안치됐다. 성화는 G-100일이 되는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성화투어 출발을 알리며 강원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성화투어가 시작된다. 신현태·이세훈 ▶관련기사 2·22면

강원도민일보

'세계 청소년 꿈' 담긴 올림픽 성화 80일간 전국 누빈다

평창올림픽 후 5년 만에 한국땅 국내 23개 도시 성화 봉송 투어 내일 서울서 G-100일 기념행사 진중오·이상화·윤성빈 등 참여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성화가 한국에 도착,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2024 강원대회 불업이 확산된다. 지난 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2024 강원 대회(1월 19일~2월 1일)를 환하게 밝힐 올림픽 성화를 환영하기 위한 국내외 인파가 가득했다. 올림픽 성화가 다시 한국땅을 밟게 된 것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약 5년 만이다.

성화 채화를 위해 아테네를 방문했던 진중오 대회조직위원장은 이날 성화 램프를 들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는 "아테네에서 채화되는 성화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담기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

어가슴이 뭉클했다"며 "뜨거운 불꽃처럼 청소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후 마스코트 문초와 청소년서포터즈들을 격려하며 이들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미디어 행사장에 마련된 거치대에 성화램프를 거치시키며 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아테네 현장 봉송에 참여했던 여자 프리스타일스키 국가대표 윤신이(16·평창 봉평고) 선수와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현겸(17·서울 한광고) 선수는 이날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성화를 직접 전달받았던 만큼 이번 대회는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며 "청소년 선수 모두가 제 기량을 발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환영 행사 이후 성화는 경찰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최종목적지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소방서 대관령 119안전센터로 옮겨졌다. 대관령 119안전센터에 안치된 성화는 G-100일이 되는 오는 11일 서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진중오 조직위원장이 지난 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올림픽 성화를 들고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세훈

광장에서 성화투어 출발을 알리며 전 국민 앞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1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G-100 기념행사'에는 진중오·이상화 공동조직위원장이 성화 램프를 들고 무대에 등장하고, 서울시가 추천한 5명의 점화자 박지원(쇼트랙)·이종원(서울 경복고 육상 꿈나

무)·양승주(서울 구로고 육상 꿈나무)·윤서진(피겨스케이팅 청소년 국가대표)·소재환(봅슬레이 청소년 국가대표·상지대관령고)선수와 홍보대사 윤성빈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스켈레톤)가 참여한다. 성화 봉송은 '꿈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과 스포츠로 하나 돼 빛나는 미래를 향해 여정을

떠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성화는 국내 23개 도시를 80일간 순회한다. 서울과 부산, 세종, 제주, 광주를 거친 성화는 11월 7일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12월 28일 강릉중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특별 성화 투어도 마련한다. 인천공항/이세훈

2023 10 10 ()

02

강원도민일보

2023 10 10 ()

2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화 도착

“조직위·강원특자도·정부 한마음 대회준비 매진”

진종오 대회조직위원장 인터뷰

“준비 상황 거의 완벽한 상태”

GANGWON
2024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G-100일을 앞두고 진종오(사진) 대회조직위원장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진종오 위원장은 지난 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가진 본지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조직위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철저한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며 “현재 저희가 점진한 부분에 있어선 거의 완벽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곧 올림픽 성화가 전국을 돌며 대회를 알리게 될 텐데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한 방한 대책을 꼼꼼하게



체크할 계획”이라며 “대회 준비가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회를 홍보하는 마케팅 부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내년 1월 치러지는 2024 강원 대회로까지 이어질 소망했다. 그는 “대회 기간 동안 명경기를 만들어냈던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내년 1월에는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나선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 2024는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첫 동계 청소년올림픽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무한한 꿈과 빛나는 미래로의 열정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세훈

2023 10 10 ()

01

강원도민일보

삼척 이사부, 한국 대표 역사인물 문화축제 발돋움

삼척 동해왕 이사부축제 폐막

사흘간 엑스포광장 구름인과

역사교육·체험·볼거리 다채

하루 평균 1만여명 방문 호응

1500년 전 우산국(율릉도, 독도)을 우리 영토로 복속시킨 신라장군 이사부의 해양개척 정신을 일깨우는 ‘2023삼척동해왕 이사부축제’가 열린 사흘 내내 축제장으로 구름 인파가 물리는 등 강력한 흡인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대표 역사인물 문화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시켰다.

삼척시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회 등이 후원한 이번 축제는 ‘출정, 그리고 승전’을 주제로 지난 6·8일 주 행사장인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축제 기간동안 연일 행사를 찾으며 우리 해양역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토를 개척한



‘2023 삼척동해왕 이사부 축제’ 마지막날인 지난 8일 주 행사장 삼척문화예술회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는 이사부 예술단 공연과 이사부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면서 오후까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영

해상영웅 이사부 장군의 해양개척 정신과 열을 되새겼고, 신라시대의 상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해 펼친 축하공연을 만끽했다.

하루 평균 1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

과 관광객들이 축제가 열린 엑스포 광장에서 신라시대 등 옛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복식체험을 비롯해 사자탈·에코백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개막식이 열린 지난 6일 오후에만

5000~6000명의 시민·관광객이 몰려 인기가수 공연과 불꽃놀이를 즐겼다.

특히 이사부 장군의 동해개척의 꿈과 투혼을 계승하기 위해 축제 마지막 날 선보인 제1회 태권무 전국경연대회에서는 댄스와 태권도를 접목시키

면서 국내·외 많은 팬층을 확보한 K-타이거즈 공연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태권무 선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관람객의 박수 갈채가 이어졌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사부의 해양개척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처음 마련된 ‘이사부 퀴즈대회’에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이사부 관련 퀴즈를 풀며 가족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시민·관광객들은 “1500년 전 우산국을 우리 땅으로 편입시킨 신라 이사부 장군의 해양개척정신과 열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축제장 곳곳에 있어 가족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매년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이사부축제는 15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한편, 생생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이사부 장군에 대한 문화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삼척을 이사부의 도시, 독도 영토 수호 메카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2023 10 10 ()

/ 19

반려동물 원정 유기 처벌 강화해야

-도내 피서지·시골 등에 버려... 대책 시급

도내 관광지나 인적 드문 시골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년 버려진 반려동물이 늘어 각 지자체 보호소도 포화상태로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강원도내 피서지와 농촌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큼니다. 가족처럼 생활하던 반려동물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물 유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의 경우, 도내에 유기된 개는 23마리에 이릅니다. 현재 공고 중인 유기견을 기준으로 춘천 7마리, 강릉 5마리, 영월 2마리, 속초 1마리 등입니다. 특히 강릉은 지난 한 달 동안 유기된 동물이 26마리에 달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견도 덩달아 늘면서 보호소에 맡겨지는 개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소 시설이 수용 한계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내 유기 동물보호 시설의 수용 규모는 약 1700마리 수준입니다. 현재 1400여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수용률이 82%에 달합니다. 강릉의 보호소도 수용 규모 150마리를 넘어 현재 200마리에 가까운 유기 동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특히 합사가 어

려운 중·대형 유기견들이 많아 수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춘천의 보호소의 경우 최근 도견장에서 구조된 개들까지 더해져서 포화상태입니다.

매년 이런 속도로 유기 반려동물이 증가한다면 시설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 유기는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동물 유기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야생에 버려져 들짐승으로 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인에 대한 처벌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반려견 학대와 유기는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생산에 제한이 없어 잉여 동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구나 강원도내 피서지 인근에 유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도내 지자체는 감시 시스템을 보강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0 ()

/ 19

강원 '글로벌대학' 모두 선정돼야

-국비 투입 절대적 필요...지역 생존책 달려있어

'강원1도 1국립대' 모델을 제시해 통합을 결정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사립대인 춘천의 한림대와 원주의 연세대 미래캠퍼스측에서는 10월 말로 다가온 정부의 글로벌대학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지정대학에서 경북과 함께 다수 대학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올해 10곳 안팎만 선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5년간 1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대학발전 정도에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 도시 캠퍼스를 특성화해 지역 수요 중심의 고등교육재구조화 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내놓았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원주에서 육성된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중심의 지·산·학 생태계 구축을, 한림대는 인공지능 기반 선진교육 시스템으로 융합클러스터와 두뇌집단형 글로벌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해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허약한 도내 주요 도시 발전과 긴밀한 사안이어서 모두 최종 선정의 쾌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생존 기로가 대학 발전과 밀접한 현안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울권 쏠림 현상의 경제 구조

로 인해 졸업 후 지방대학 소재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진로 장벽에 막혀 학업을 중단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매년 대입 지원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 '신입생 감소 쓰나미' '지방대학 고사 위기' '벼랑 끝 지방대'와 같은 기사가 쏟아져 암울함을 대변합니다.

더욱이 서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과 취업에서 열악한 사회적·환경적 장벽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국가적 노력이 강구되지 않으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습니다. 과거엔 대학교육이 지식과 기술, 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져도 대학 존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대학 중 입학 지원자 감소가 적은 대학이나 학과의 공통점은 대학교육이 취업과 확실하게 연계된 경우입니다.

중앙정부 측은 지방대학의 고사가 그 지역 쇠퇴를 가속하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은 미리 정해둔 숫자에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인된 지역대학 모두 선정해 획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결단 없이는 실효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10 10 ()

/ 19

다시 들쭉이는 물가, '경제고통' 끝은 어디인가

물가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2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뛰었다. 8월(3.1%)에 이어 3%대 오름세를 이어가며,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윳값이 일제히 오른 데 이어 맥주값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식음료 제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고 밝혔다.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은 2022년 3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여기에다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올린 뒤 다섯 분기 동안 40.4원을 인상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200조원을 웃도는 역대급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긴축 여파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지경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고물가는 서민의 부

담을 커지게 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반등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공공요금 억제 같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정부는 선제적 고통 분담 노력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방지할 경우 비용 상승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고물가는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에 고통을 안긴다. 비상하고 정교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지금의 물가는 각종 요금 인상 제한이나 세금 인하 같은 국지적 조치만으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기준금리 인상을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문제만 키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끝수록 인플레이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그 결과 실질소득이 급감하면서 전체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나친 비관론도 금물이지만, 지금은 긴 안목으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노조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을 줄여 나갈 수 있다.

江原日報

2023 10 10 ()

/ 19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불업, 남은 100일이 중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가 드디어 지난 8일 한국에 도착했다. 올림픽 성화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약 5년 만이다. 본격적인 청소년올림픽 불업을 위한 성화 투어는 대회 100일을 앞둔 11일 서울 광장에서 성화 출발 선언과 함께 80일간 23개 도시에서 이뤄진다. 성화 투어의 주제는 ‘꿈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과 스포츠로 하나 되어 빛나는 미래를 향해 성화 투어 여정을 떠난다’, 표어는 ‘연대의 여정 (Journey of Soli-

darity)’이다. 성화 투어는 성인 올림픽 성화 봉송과 달리 도로 위를 달리는 주자 릴레이는 하지 않고 서울과 부산, 세종, 제주, 광주, 강원

등 18개 시·도에서 성화 주자들이 성화 점화대에 불을 붙이는 점화식만 진행된다. 성화 투어가 종료된 뒤 남은 20일은 4개 개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횡성)의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 성화 투어’가 펼쳐진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1일까지 세계 70여개국에서 2,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창·강릉·정선·횡성 일원에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제 100일 남았다. 이번 대회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화합하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지구촌 종합스포츠 대축제다. ‘어게인 평창’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 평화의 성지에서 열린다. 따라서 올림픽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점화할 수 있는 기회다.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을 되살려야 한다. 전열을 가다듬고 불을 조성해야 한다.

11일부터 80일간 전국 23개 도시 성화 투어
평창올림픽 열정 되살리는 게 성공 개최 관건
국가 대사에 정부·지자체 지원·관심 늘려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국가적 대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5년 전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보다 전방위적 불업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배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지역경기를 살려내고 도민과 국민이 다시 뭉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의 큰 발전을 이뤄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역시 대회의 가치와 이상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회로 치러야 한다. 이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도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